

조기 접촉이 모아에착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역사회 간호학과

윤 희 자

조기 접촉이 모아애착에 미치는 효과

지도 장 순 복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역사회 간호학과

윤 희 자

윤희자의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5년 12월 일

감사의 말씀

먼저 본 주제 선정을 통해 본인이 임상간호수준 향상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면이 많지만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새로운 힘과 동기를 주시고 학문적 통찰력과 판단력으로 자세히 지적해주신 장순복 교수님, 때론 열정적으로 논문을 지도하시다가 다음 강의시간에 늦을뻔한 교수님께 감사와 죄송한 마음 전해드립니다. 언니와도 같이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지도해 주신 김수 교수님, 분만실에서 항상 아끼고 사랑해 주시며 따뜻한 말씀으로 격려하시며 연구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신 산부인과 김석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통계적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흔쾌히 도와주시고 다양한 접근으로 논문을 잘 쓸 수 있도록 기쁘게 도와주신 이화부속고등학교 권인숙 선생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적극적으로 자료수집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분만실 간호사 이지연 선생님, 김숙영 선생님, 이유정 선생님, 손유희 선생님, 최경희 선생님, 박영미 선생님, 박은경 선생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모아 애착행위 관찰에 도움을 준 신생아실 왕금현 수간호사 선생님과 송영주 선생님, 신생아실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료수집에 직접 응해주셨던 산모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해도 무한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36년 동안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헌신해 주신 부모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직장과 학업과 교회 일을 잘 감당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부족한 작은 결실을 바치며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윤희자 올림

차 례

국문요약	i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3. 연구 가설	5
4. 용어 정의	5
II. 문헌고찰	7
1. 조기 접촉	7
2. 모아애착	9
3. 개념적 틀	13
III. 연구방법	14
1. 연구설계	14
2. 연구대상	14
3. 연구도구	15
4. 실험처치	16
5.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16
6. 자료분석방법	18
IV. 결과	19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19
2. 가설 검정	22
1) 제1-1 가설 검정 : 산모의 신생아 동일시 행동 차이	23
2) 제1-2 가설 검정 :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상호작용 차이	23
V. 논의	25

VI. 결론 및 제언	30
1. 결론	30
2. 제언	32
참고 문헌	33
부록	37
영문초록	41

표 차례

표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1)	21
표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2)	22
표3. 조기 접촉 유·무에 따른 모아 애착행위의 차이	22
표4. 조기 접촉 유·무에 따른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동일시 행동의 차이	23
표5. 조기 접촉 유·무에 따른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상호작용 양상의 차이	24

그림 차례

그림 1. 본 연구의 개념적 틀	13
-------------------------	----

부 록

부록 1. 일반적 특성 설문지	37
부록 2. 모아애착행위 관찰도	40

국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아기만출 직후 10분간의 언어적, 시각적, 촉각적 접촉을 통한 실험처치를 통한 모아조기접촉이 산모의 애착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이다. 연구는 유사 실험연구로서 비 동등성 대조군 사후 시차설계로 수행되었다.

연구는 2005년 9월부터 10월까지 G병원(연 분만건수 1000건)에 분만을 위해 입원하는 초산부 41명 (실험군 21명, 대조군 20명)을 표본으로 하였다. 조기접촉은 아기만출 직후 1분과 신생아 즉각 간호가 끝난(5분)직후 9분, 총 10분간 하였다. 자료수집은 신생아실에서 모아애착 측정을 하였으며 출산 6시간후 모유 수유실에서 첫 수유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명의 간호사가 일관성 있게 직접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서 일반적 특성에 관한 15문항, 모아 애착에 관한 22문항(이자형과 김진향, 1981)중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동일시 행동 10문항,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모아상호작용 12문항으로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사용하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한후 t-test, χ^2 -test로 두 그룹간의 동질성 검증과 모아애착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분만3기 모아 조기 접촉군과 비접촉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15개의 제 특성은 두 군간에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신횟수, 평균 유산 횟수($p < 0.034$)가 비 접촉군이 조기 접촉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2. 가설1, 모아 조기 접촉한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모아 애착정도가 정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연구결과 조기접촉군의 모아애착 평균 12.33 (± 1.53) 점수로 대조군 평균 6.60 (± 2.23) 점수 보다 유의하게 높아 지지 되었다($t = 9.635$ $p = 0.000$).

가설 1-1, 모아 조기 접촉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산모의 신생아 동일시 행동 정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연구 결과 조기접촉군의 신생아 동일시 평균 4.286(± 1.056) 점수로 대조군 평균 2.400(± 1.095) 점수 보다 유의하게 높아 지지 되었다 ($t = 5.613$ $p = 0.000$).

가설 1-2, 모아 조기 접촉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모아 상호작용이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연구 결과 조기접촉군의 모아상호작용 평균 8.048(± 1.244) 점수로 대조군 평균 4.200(± 1.542)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아 지지 되었다 ($t=8.813$ $p= 0.000$).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기만출 직후 10분간의 모아 조기 접촉이 모아 애착 (동일시 행동, 모아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호중재임이 규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기만출 직후 10분간 조기 접촉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5분, 15분, 20분 등의 시차에 따른 애착행위 정도를 비교연구 할 것을 제언한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애착은 영아가 자신의 1차 양육자와 형성하는 애정적인 유대관계로 (Bowlby, 1958),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은 아동의 인지가 성장함에 따라 1차 양육자와의 관계에 대한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의 생식작용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태어난 후에는 부모의 사랑과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발달을 계속해 나간다(하,1982). 따뜻하고 원활한 부모-자녀관계는 영아를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융통성과 능력이 있는 사회적 인간존재로 발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출생 직후 조기접촉을 통해 형성된 애착은 영구적이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과 영아의 성장발달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시되고 있다(Klaus, Kenne, 1976). Mussen(1973)은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는 최초로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그 최초의 경험은 성장 후 성격과 적응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애착의 질에 따라 자녀의 양육방식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세대를 걸쳐 대물림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조기에 형성된 긍정적인 모아 관계는 숨겨진 조정요인(Hidden Regulator)으로서 전 일생의 신체, 정서적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효과를 갖게 한다(Shore, 1997).

애착형성에 가장 민감한 시기인 출산 후 24시간 내에 산모와 아기가 분리되면 건강한 산모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걱정하게 되고, 아기의 반응에 대해 익숙해지지 못하므로 퇴원 후 아기 돌보기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어머니로서

의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게 되며, 신생아 돌보기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이 저하되고 더 나아가 산후 우울로 까지 발전 될 수 있다(이영화, 1998; Cooper, Murray, 1998).

그러므로 건강한 모아 관계는 출생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출생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전되는 습득과정으로 모아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모아 관계를 사랑으로 연결하여 모성애로 발전시켜 주는 것으로(Robson 등, 1970), 반응을 일으키려는 개인에 의해서 형성되며 애정을 가진 관계를 통해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Aab, 1976). 이러한 조기 모아 애착의 발달과 모성 행위는 신생아의 자극 및 그 이외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산육기 초기 모아 접촉과 신생아 돌보기 활동(Caretaking Activity)은 모아의 상호 작용을 촉진시켜 애착을 형성하는데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Chao,1983 ; Cropley 등 1976; Ludingron, 1977). 신생아는 출생 당시부터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음성이나 얼굴표정, 몸동작으로 의사소통을 유도하고, 어머니는 그러한 신생아의 신호에 반응함으로써 신생아의 경험을 확장해 주고 신생아의 능력에 환경을 제공해 주어 이들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돕는다(Robson; 1970).

아기의 신체건강과 지적 발달, 언어발달, 인격과 정서발달 및 학업 준비도 등에 미치는 모아관계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선행연구(Belsky 등, 1991; Bigner, 1985; Tulman, 1980)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신생아는 내적 조절 혹은 조화와 환경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평형의 유지(0-3개월)로부터, 생물학적 세계의 깊고 풍부한 감각을 통해 1차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정서적 애착의 형성(2-7개월), 그리고 융통성 있고 광범위한 여러 감정적 체계와의 우연적 혹은 상호적 상호작용(3-10개월)을 통해, 복합적이고 조직화된 그리고 통합된 행동적 정서적 양상(9-24개월)의 방향으로 발달적 구조

를 이룬다(Greenspan, Progres ,1984).

산후 2개월 동안에 모아의 애착이 형성되고 초기 접촉이 이루어지므로 모아 모두에 있어 이 2개월간이 중요한 시기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신생아는 대부분 욕구를 어머니로부터 충족시키게 되고 이러한 욕구 충족을 통하여 신뢰감을 배우게 되며, 생후 6개월까지의 모아관계 형성은 아기의 인지 및 사회, 심리적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Belsky, Gilstrap, Robin ,1991).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신생아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인 요구 보다는 신생아를 간호 하는 기술적인 면에 전념하고 있음에 따라 분만 후 모아 관계형성과 가족 중심적 분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분만과 관련해 모자동실을 운영하고 병원이 정책적으로 모유수유를 장려하는 등 모아간 조기접촉을 유도하여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형성을 촉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기관에서는 부모와 신생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시각접촉과 피부접촉은 애착형성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인 요구보다는 신생아를 위한 신체적 요구에 따른 기술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신생아실은 폐쇄되어 있거나 방문을 제한하고 신체적 접근을 금하여 왔다(정광희.1986).

산욕기 처음 24시간 이내의 모아조기 접촉 유무가 신생아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며 신생아의 발달에 도움을 주고 모성 감정의 발달을 촉진 시켜 준다(Lodermilk, Perry, 2003). 한편 Lozoff (1977)와 Garbarino (1980)에 의하면 신생아는 출생 직후 한 시간에 기민성과 반응성에 아주 민첩한 시기(Alert state)에 놓인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때의 신생아는 눈을 크게 뜨고 시각적인 것에 쉽게 반응을 나타내며, 인간의 얼굴이나 소리에 반응 할 수 있고, 힘차게 젖을 빨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따

라서 만일, 출생 직후 한 시간 안에 조기피부접촉을 하면, 신생아의 능력을 자극해서 신생아가 민첩 시기에 몰입 되도록 할뿐 아니라, 민첩성을 증가 시키게 한다고 했다. 이러한 신생아의 민첩성이 새로운 아기의 어머니가 된 산모에게, 애정 깊은 모성행위를 나타내도록 고무시킨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아상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간호중재를 증진 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를 개발하거나, 그 중재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다(Lee, 2003).

기존의 조기 접촉과 모아애착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면 분만후 첫 몇 분 내지 몇 시간 내에 존재 한다는 모성 민감 시기의 피부접촉에 대해 Weiss(1979)는 분만 초기에 접촉 횟수를 증가 시키면 유대관계가 향상된다고 했고, Anisfeld(1983)는 모아의 첫 접촉의 시간 길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편 Curry(1982)는 분만후 한시간 이내의 피부접촉에 있어서 접촉하는 것 그자체가 중요하지 접촉의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최근 다양한 분만법의 도입으로 산모가 주도하는 출산 문화로 바뀌고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분만법은 산모와 아기를 위한 분만법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아기만출 직후 애착 형성이 가장 민감한 시기에 태명이나 이름을 부르며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아기에 대한 첫 느낌을 표현 하도록 하며 아기 얼굴과 손가락 발가락 확인 시켜주며 아기 성별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엄마 가슴위에 아기를 얹어 안아 보도록 하고 엄마 볼에 아기 얼굴을 대어 주며 젖을 물려주는 행위등 산모가 손으로 아기 얼굴, 손가락, 발가락을 만져보도록 한다. 이런 아기만출 직후 총 10분간의 모아 조기접촉이 모아애착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아기만출 직후 총 10분간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모성

과 신생아의 애착형성을 돕기 위해 조기 접촉에 대한 직접간호 과정의 도입 및 적용 가능한 중재 방법, 시기, 시간에 대해 체계적인 간호중재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기만출 직후 신생아 조기접촉이 모아애착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 모아의 조기 접촉이 어머니의 동일시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둘째 ; 모아의 조기접촉이 어머니의 상호작용 양상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3. 연구 가설

조기 접촉한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모아 애착정도가 정도가 높을 것이다.

1-1)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산모의 신생아 동일시 행동 정도가 높을 것이다.

1-2)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모아 상호작용이 높을 것이다.

4.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기접촉

아기 만출 직후부터 분만실 간호사에 의하여 산부에게 체험시킨 10분간 언어적, 시각적, 피부적 접촉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름 부르기, 손, 발가락과 성기 확인, 가슴에 안기, 엄마 볼에 아기얼굴 대어주기, 젖 물리기, 손, 발가락 만져보기 등의 감각적 체험을 의미한다.

2) 모아 애착

모아 애착이란 어머니와 아이의 결정적 시기의 상호 작용으로부터 발달 되는 것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양육 능력을 영원히 결정짓는 힘이다.

본 연구에서는 Cropley, lester 및 Pennington(1976)이 고안하고 이자형과 김진향(1981)이 번안한 도구중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동일시 행동(10문항),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모아상호작용(12문항), 각각여부에 대한 22문항을 의미한다.

II. 문헌 고찰

1. 조기 접촉

질 분만은 분만진통이 따르지만 자녀를 출산하므로 ‘해냈다’는 성취감이나 ‘엄마가 되었다’는 모성 정체감을 확립하는 긍정적인 면과 예견되는 불안과 공포 및 ‘너무 아팠다’는 부정적인 면이 함께 존재한다(송미승, 1993; Waldoenstroml, Borg, Olsson, Skold & Wall, 1996). 그러므로 분만 후에 산부들의 분만 경험은 통증을 스스로 극복 해내지 못하였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보다 통증이 심했지만 잘 극복했다는 성취감이나 긍정적인 모성정체성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annon(1977)은 어머니가 영아의 첫 울음을 가능하면 긴장된 상태에서 기대하고 일단 그 울음을 듣고 영아가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긴장을 완화하고 행동을 하게 되고 안심하게 된다고 하였다. 모아가 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반응하는 최초의 경험이 있을 후 어머니는 처음에는 말하도록 권유되었을 때에만 영아에게 말하다가 그 후 차츰 애정 어린 말과 억양을 사용하면서 자발적으로 영아와 이야기 하는 진전을 이룬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첫 몇 분내지 몇 시간 내에 산모와 아기가 서로 피부와 피부를 맞닿으로써 산모는 임신의 환상에서 벗어나 그들의 독특한 개체로서의 아기에 대한 인각(Imprinting)이 일어나고 이는 모성유대 위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주장 되었다.

이렇게 모아의 유대 관계가 시작되는 생애의 첫 몇 분 내지 몇 시간 내에 존재 한다고 Klaus와 Kennel(1972)은 했다.

분만직후 24시간 동안 산모와 아기를 분리시켜 놓으면 어머니의 유대행

위가 감소된다고 보고한 때부터이다. 그 후 Klaus와 Kennel이 인간에게도 모성 민감 시기가 있으며, 분만직후 수 분내지 수 시간 내에 존재하고 이 시기에 어머니와 아기가 피부접촉을 갖도록 하면 모성유대행위가 증가 된다고 연구발표 하기에 이르렀다.

분만 후 첫 몇 분내지 몇 시간 내에 존재 한다는 모성 민감 시기의 피부 접촉에 대해 Weiss(1979)는 분만 초기에 접촉 횟수를 증가 시키면 유대관계가 향상된다고 했고, Anisfeld(1983)는 모아의 첫 접촉의 시간 길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편 Curry(1982)는 분만 후 한 시간 이내의 피부접촉에 있어서 접촉하는 것 그자체가 중요하지 접촉의 길이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피부의 촉감은 우리의 언어만큼 중요하며, 피부접촉은 중요한 의사전달 도구로서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만족감을 유발시키게 한다고 했다. Rubin(1963)은 또한 신생아는 모든 감각 중에서 촉각이 가장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애정 있는 접촉은 출생이후 전 생을 통해서 신뢰감을 형성하고 편안감을 느끼며 사물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므로서 올바른 모아관계 형성에 필수조건이 된다고 했다.

한편 Lqzoff(1977)와 Garbarino(1980)에 의하면 신생아는 출생 직후 한 시간에 기민성과 반응성에 아주 민첩한 시기(Alert state)에 놓인다고 주장 하였으며 이때의 신생아는 눈을 크게 뜨고 시각적인 것에 쉽게 반응을 나타내며 , 인간의 얼굴이나 소리에 반응 할 수 있고, 힘차게 젖을 빨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였다. 따라서 만일, 출생 직후 한 시간 안에 조기피부접촉을 하면, 신생아의 능력을 자극해서 신생아가 민첩 시기에 몰입 되도록 할 뿐 아니라, 민첩성을 증가 시키게 한다고 했다. 이러한 신생아의 민첩성이 새로운 아기의 어머니가 된 산모에게, 애정 깊은 모성

행위를 나타내도록 고무시킨다고 한다. Bowlby(1969)는 또한, 어머니의 모성행위는 인간의 오랜 역사동안 가족 내에서의 역할이나, 환경, 문화, 사회적인 것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아 여성에게 있어서의 모성행위는 내면화된 본능적인 행위라고 하였다.

그런데 새로운 아기가 태어 났을때 피부접촉을 해주면 자신의 아기에 대한 감각적이고도, 현실적인 개념을 얻게 되며, 어머니로서의 역할 상황에 더욱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 아기에 대한 유대가 고양 된다고 한다(Rubin, 1963). 최근 Nelms(1983)은 모성유대는 모아애착이 시작되는 국면으로 부모와 신생아의 관계를 첫 구성 하는 것이라고 정의 했다. 즉 모성유대는 모아애착의 시작을 말하는 시발점으로 모성유대관계는 영아의 인지발달에 따라 형성되는 상호적인 애착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신생아를 사랑스럽게 바라본다든지, 미소를 보낸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콧노래를 해준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껴안아 준다든지, 키스를 해준다든지, 아기를 흔들어 주는 등의 유대행위로 반응한다(Lozoff,1977). 이와 같은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행동 형태는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Rubin(1963)은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기피부접촉은 모아양쪽의 상호반응을 촉진시켜 애착을 형성하는데 유의한 관계가 있다(Ludington -Hoe, 1977). 임상의 고찰결과 조기접촉의 방법, 시간, 시기가 올바른 모아관계 형성 및 애정 깊은 모성행위를 가장 효율적 할수 있는 방법이라 설명할 수 있다.

2. 모아애착

부모와 아이 사이의 애착은 임신동안에 시작되고 출산 초기에 강화되며 아이의 정신과 실체 건강에 본질적이므로, 모아 애착을 증진시키는 것이

모성 간호가 추구해야 할 의미 있는 목표이다(Olds. S. B. 등, 1988).

모아관계는 인간 사이의 가장 의미 있고 친밀한 관계중의 하나로서 건전한 모아관계형성은 인간사회의 시작이며 근본이 되고 있다(장영숙, 1989). 건전한 모아관계란 출생과 더불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출생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전되는 습득과정으로 모아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모아관계를 사랑으로 연결하여 모성애로 발전시켜 주는 것으로서 반응을 일으키려는 개인에 의해서 형성되며 애정을 가진 관계를 통해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초기 모아애착은 건강한 모아설정에서 매우 중요하며, 아동의 신체적 지적 발달과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초기 형성된 결속은 오랫동안 지속되지만 이 결속이 실패 했을 때 모아관계형성은 방해되며 취약 아동증후군이나 고 위험 신생아의 발생, 성장의 실패를 초래한다고 한다. 애착은 한 개인이 특정한 다른 개인과 형성하는 지속적인 애정적 유대로서,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며 애착행위는 특정 인물에 대한 애착을 발달시켜 주는 매개역할을 한다(Bowlby, 1969). 영아의 초기 애착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모성 민감성, 기질, 성격 유형, 결혼 생활요인 등 어머니와 관련된 요인, 영아의 기질, 출생상태 등 영아와 관련된 요인, 출생 후 모자간 초기 접촉 등 모아결속 형성에 관련된 요인 등이 있다(이영. 도연순, 1994). Sroufe 와Waters(1977)는 애착대상 가까이 있어 신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때에 영아는 안정감을 느끼게 됨으로 더욱 사회적이며 자유롭게 주변을 탐색하며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다고 보고 하였다. 애착의 기원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Klaus, Kennell, 1976)는 출생 후 어머니와 영아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고, 그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애착은 산후와 영아기 초에 근원한다는 가정을 하게 되었다. 모아관계는 영아에게 있어서는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가장 의미 있고 친밀한 관계로서 사회화의 원천이 되며, 또한 모성측 에서는 경험을 충만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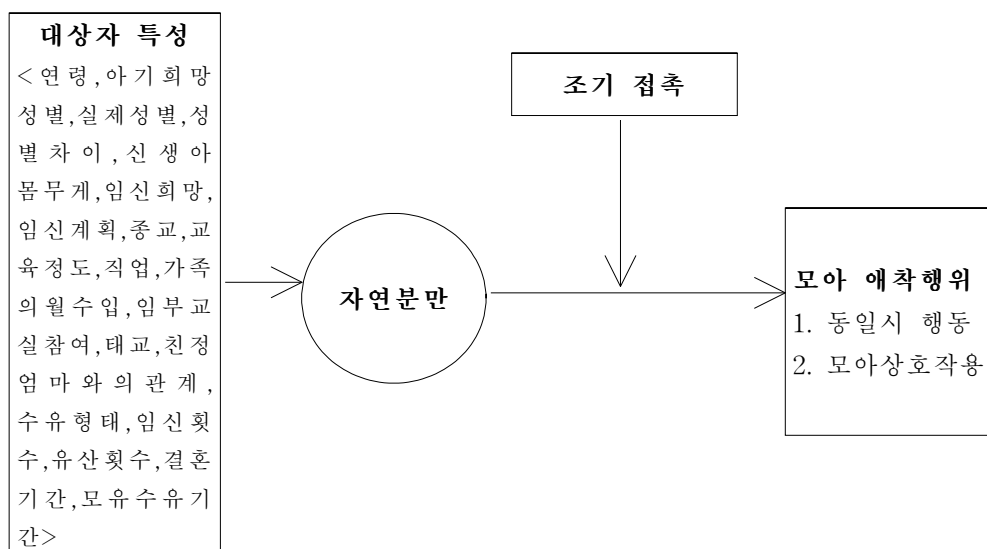
하는 개인적 성장 발달의 기회가 된다(Binger, 1985). 이러한 모아관계는 어머니와 초기 영아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되는 것이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변화, 발전하게 된다(Belsky등, 1984; Thomas , Chess, 1977). 모아 관계에 대한 주요 연구를 고찰해보면, Bowlby(1958)와 Klaus, Kennell등 (Klaus, Kennell, 1970; Klaus, Jerauld, Kerger, Mcalpine, Steffa, Kennell, 1972)은 모아관계 형성에 있어 다른 포유동물들 과 마찬가지로 분만 후 수 시간 또는 수일의 민감기(Sensitive period)가 있으며, 이 시기에 모아가 분리되어 있거나 관계 장애의 요소가 있으면 모아 결속이나 애착(Attachment)이 형성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민감기인 초기의 모아접촉 유무가 애착에 과연 영향을 주는지, 또는 어느 기간 동안 그 효과가 지속 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결과 및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즉, Klaus 와 Jeraud등 (1972)은 초 임부를 대상으로 조기 접촉이 이후의 영아모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했는데, 대조군은 출산 후 병원의 정규 간호를 받고, 실험군은 분만직후 16시간동안 연장된 모아 접촉을 시킨후 약 한달 뒤에 영아모의 행동을 비교한 결과 실험군 에서 더 많은 시각적 모아애착과 달래고 보살피는 행동을 발견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어머니와 신생아의 초기 피부 접촉이 모성유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임(1984)은 조기 피부접촉을 한 실험군 에서 대조군 보다 더 많은 모성유대행위 빈도를 관찰하였다. 이러한 초기 모아애착의 발달과 모성행위는 신생아의 자극 및 그 이외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는데 , 특히 산욕기 초기 모아접촉과 신생아 돌보기 활동(Caretaking Activity)은 모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애착을 형성하는데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Chao,1983 ; Cropley 등,1976 ; Ludington -Hoe ,1977). 그러므로 모아애착을 형성하는데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로 알려져 있는 산욕기 초기에 모유수유를 권장, 격려, 지지하는 것은 모아의 건강한 관계형성을 위해 중

요한 역할이라 보여 진다. 따라서 모아관계의 장애는 대부분 모아애착 형성 기회가 박탈됨으로서 비롯되는 것으로, 산욕기 초기에 애착이 발생하지 않으면 모아애착의 기회는 사라지고, 그 영향이 영구히 지속되므로 조기에 착형성부전은 모아 양측에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Tulman ;1981). 즉, 어머니는 모성애와 어머니 역할의 장애를 일으킴으로서 아동의 육체적, 심리적, 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Cropley 등, 1976; Hamlton, 1976 ; Hurd ,1975 ; Klaus 등, 1976 ; Swanson, 1978). 영아의 신호에 대해 양육자가 적절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 영아는 어머니에 대해 반응적이며 애정적인 내적 실행 모델을 갖고, 자신에 대해서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개체로 인식하여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어머니와 자신에 대한 내적 실행 모델은 영아가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형성하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Bretherton, 1985). 따라서 모아애착을 형성하는데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로 알려져 있는 산욕기 초기 (Anderson ,1977 ; Klaus 등,1976 ; Salk, 1976)에 아기만출 직후 태명이나 이름을 부르며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아기에 대한 첫 느낌을 표현 하도록 하며 아기 얼굴과 손가락 발가락 확인 시켜주며 아기 성별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엄마 가슴위에 아기를 엮어 안아 보도록 하고 엄마 볼에 아기 얼굴을 대어 주며 젖을 물려주는 행위등 산모가 손으로 아기 얼굴, 손가락, 발가락을 만져보도록 하는 조기 접촉이 모아의 건강한 상호관계 수립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애착증진의 시도는 아기만출 직후 조기접촉으로 동선 강화가 가장 유용한 접근법임이 고찰되었다.

3. 개념적 틀

본 연구를 위한 문헌고찰 결과 유도된 개념들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그림 1> 본 연구의 개념적 틀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조기접촉이 모아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대조군 사후 유사 실험 연구로 연구설계는 다음과 같다. < 그림 2>

	사전 조사	실험처치(조기접촉)	사후 조사 (모아애착)
실험군		X	Ye 1
대조군			Yc 1

X: 분만후 10분간 언어적, 시각적, 피부접촉

<그림 2> 본 연구의 설계 모형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2005년 9월부터 10월까지 G병원(연 분만건수 1000건)에 분만을 위해 입원하는 초산부 41명 (실험군 21명, 대조군 20명)을 다음 선정기준에 만족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신생아는 기형이나 결함이 없고, 적어도 체중이 2500gr 이상이면서 출생후 첫 1분의 Apgar score가 7-10인 신생아를 말한다.

- ① 연령은 만 20세에서 35세, 정상적인 부부관계 유지하고 있는 산모
- ② 임신 합병증이 없이 정상 임신과정을 거치고 정상 분만을 한 산모
- ③ 제태기간이 38주에서 42주 사이에 분만한 산모.
- ④ 태아가 단 태위며 두 정위를 분만한 산모
- ⑤ 단일 (K 의사) 분만 개조자 산모에 국한 (실험군)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로서, 크게 모아 상호작용과 관련된 요인을 조사 하기위한 "일반적 특성 질문지 (15문항)" 와 조기접촉 유무에 따른 모아 애착행위를 측정하기 위한 "모아 애착행위 측정 도구 (22문항)" 로 총 3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 모아애착행위 도구

본 도구는 모아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애정의 관계로 산모자신이 출산한 신생아에 대해 나타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한 정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Cropley, lester 및 Pennington(1976)이 고안하고 이자형과 김진향(1981)이 번안한 도구 중 모아 동일시 행동(외모와 기능, 상태의 평가)을 측정하는 10문항과 상호작용의 양상(언어적, 시각적 접촉, 피부적 접촉)을 측정하는 12문항 등 총22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상자에 의해 각 항목의 행동이 나타날 경우에는 1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모아애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성미혜 외(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7$ 로 나타났다.

4. 실험처치

실험 처치는 총 10분간 단일(K 의사) 분만 개조자에 의해 아기 만출직후 바로 엄마의 가슴위에서 1분간 피부 접촉후 제대를 자른후, 신생아 즉각 간호가 끝난 (5분)후, Apgar Score(5분) 평가후 다시 산모의 가슴에 아기를 올려놓고 아기 이름 부르기, 손, 발가락, 성기 확인, 가슴에 안기, 엄마 볼에 아기 얼굴대기, 젖 물리기, 손, 발가락을 만져보게 하는 방법으로 실험적용 하였다.

5.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1) 연구 절차

자료수집은 2005년 9월17일부터 2005년 11월 25일 까지 인천에 소재한 1개의 종합병원에서 분만한 초산모를 대상으로 입원시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문을 1차 작성하고 사후 조사로 분만후 6시간이 지나서 신생아실 간호사가 모유수유에 대해 교육을 하면서 모아 애착행위에 대해 조사 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의 목적과 도구에 대해 교육을 받은 신생아실 간호사 1인의 연구원과 직접 연구에 임했다.

먼저 2005년 9월 12일부터 9월15일까지 관찰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찰해야 할 행동목록을 관찰자로 하여금 전부 암기 하도록 했다.

본격적인 관찰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명의 산모를 연구자와 관찰자가 동시에 관찰하면서, 관찰한 행동을 도구에 표시한 다음 $\text{Agreements} \div (\text{Agreements} + \text{Disagreements})$ 로 계산해 신뢰계

수를 구한 결과 0.91로 나타났으며, 실험군은 단일 (K의사)주치의 산모만 포함 시켰다.

1차 자료 수집은 9월17일부터 9월30일 까지 G병원에서 자료를 수집했다. 대조군 20명을 대상으로 먼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실험군 21명은 2005년 10월1일부터 10월25일 까지 아기 만출 직후부터 분만실 간호사에 의하여 산부에게 체험시킨 10분간 언어적, 시각적, 피부적 접촉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름 부르기, 손, 발가락, 성기 확인, 가슴에 안기, 엄마 볼에 아기 얼굴대기, 젖 물리기, 손, 발가락을 만져보게 하면서 감각적 체험을 하도록 했다. 대조군은 분만직후 따뜻한 담요에 싸서 어머니에게 잠깐 보여준 후 신생아실로 보냈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모두 정규간호를 받았다.

2차 자료 수집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모유수유실천 중단이 가장 높은 산후 4주에 이차사후 조사로 모유수유형태와 모유수유 지속정도를 전화설문 조사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모성애착 행위는 분만후 6시간이 되었을 때 신생아실 간호사가 어머니에게 아기를 데려다 주면서 수유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시범을 보일 때 관찰하였다. 아기를 안고 수유를 하고 있는 어머니의 곁에 앉아 애정의 관계로 산모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에 대해 나타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한 정도로서 Cropley, lester 및 Pennington(1976)이 고안하고 이자형과 김진향(1981)이 번안한 도구중 모아 동일시 행동, 상호작용의 양상을 이용해 모성 애착행위를 20분 동안 계속 관찰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로 자신의 정상적인 행동을 조장하거나 억압시키는 것 같지는 않았으며, 가끔 이야기를 하는 등 자연스런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관찰자는 Halo effect를 막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을 모르도록 했다.

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Windo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조기 접촉과 비 접촉 산모의 모아 애착행위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χ^2 -test 와 t-test로 동질성 검증을 하였다.

② 조기 접촉과 비 접촉 산모의 모아 애착행위와 관련된 항목 차이는 t-test 로 두 군간의 애착행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분만3기 조기접촉군과 비 접촉군의 모아 애착행위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의 분포와 동질성 검증의 결과는 <표 1, 2>과 같다.

조기 접촉을 한 산모의 평균 연령은 29.95세 였으며, 임신횟수는 1.71회, 유산횟수는 .71회, 태아몸무게는 3218gr, 결혼 기간은 48.76개월 이었다.

임신중 기대했던 아기의 성별은 남아10명(24.4%), 또한 실제 분만한 성별중 남아분만 12명(29.3%), 아기 성별에 대한 기대와 실제의 차이에서 일치 12명(29.3), 임신희망은 19명(46.3)이 희망, 임신계획은 부부가 함께 13명(31.7%), 무 종교8(19.5%), 학력은 고졸 11명(26.8%)이 많았으며 출산을 계기로 사직한 경우 13명(31.7%)이었다.

또한 가족의 월수입은 200만원 이하가 9명(22.0%), 임부교실 참여 여부는 참여안함이 18명(43.9%), 태교 실시 여부는 실시함이 14명(34.1%), 친정엄마와의 관계에서 편함 20명(51.3%)으로 분포를 나타내었다. 산후 4주후 수유형태에서 모유수유 17명(41.5%), 모유수유 기간은 평균28.89일 이었다.

조기접촉을 하지 않은 산모의 평균 연령은 31.75세 였으며, 임신횟수는 2.30회, 유산횟수는 1.30회, 태아몸무게는 3044gr, 결혼 기간은 52.20개월 이었다. 임신중 기대했던 아기의 성별은 남아8명(19.5%), 또한 실제 분만한 성별중 여아분만 15명(36.6%), 아기 성별에 대한 기대와 실제의 차이에서 일치 13명(31.7%), 임신희망은 14명(34.1%)이 희망, 임신계획은 부부가

함께 11명(26.8%), 기독교9(22.0%), 학력은 대졸 11명(31.7%)이 많았으며 출산을 계기로 사직한 경우 11명(26.8%)이었다.

또한 가족의 월수입은 201~300만원 이하가 12명(29.3%), 임부교실 참여 여부는 참여안함이 19명(46.3%), 태교 실시 여부는 실시함이 18명(43.9%), 친정 엄마와의 관계에서 편함 18명(46.2%)으로 분포를 나타내었다. 산후 4주후 수유형태에서 모유수유 14명(34.1%), 모유수유 기간은 평균 28.13일이었다.

두 군간의 동질성 여부를 보면, 태아 몸무게, 희망성별(남아), 임신희망, 부부와 함께 임신계획, 출산을 계기로 사직, 가족의 월수입, 친정엄마와의 관계, 모유수유, 모유수유 기간은 조기 접촉군에서 비율이 많았고, 평균연령, 실제 성별일치, 학력, 태교실시, 결혼기간은 조기 접촉을 하지 않은 군이 높았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임신횟수($p < 0.034$), 평균 유산 횟수($p < 0.034$) 동질성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임신횟수, 평균 유산 횟수($p < 0.034$)가 비 접촉군이 조기 접촉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n = 41, 인수(%)

특 성	구 분	실험군(%) N = 21	대조군(%) N = 20	x ²	p
희망 성별	남	10(24.4)	8(19.5)	2.8	0.247
	여	9(22.0)	6(14.6)		
	무 관	2(4.9)	6(14.6)		
실제 성별	남	12(29.3)	5(12.2)	4.36	0.037
	여	9(22.0)	15(36.6)		
실제 성별과 희망성별 차이	일 치	12(29.3)	13(31.7)	0.27	0.606
	불일치	9(22.0)	7(17.1)		
교 육	고 졸	11(26.8)	7(17.1)	1.26	0.262
	대 졸	10(24.4)	13(31.7)		
직 업	무	4(9.8)	7(17.1)	1.63	0.443
	출산을 계기로 사직	13(31.7)	11(26.8)		
	산후 휴가후 복직예정	4(9.8)	2(4.9)		
임신 희망	원 함	19(46.3)	14(34.1)	2.74	0.098
	원하지 않음	2(4.9)	6(14.6)		
임신 계획	혼 자	4(9.8)	7(17.1)	1.63	0.443
	부부 함께	13(31.7)	11(26.8)		
	남편 의지	4(9.8)	2(4.9)		
종 교	무	8(19.5)	7(17.1)	2.04	0.728
	기독교	6(14.6)	9(22.0)		
	천주교	3(7.3)	2(4.9)		
	불 교	3(7.3)	2(4.9)		
	기 타	1(2.4)	0		
가족의 월수입	200만원 이하	9(22.0)	5(12.2)	5.60	0.061
	201~300만원 이하	5(12.2)	12(29.3)		
	301만원 이상	7(17.1)	3(7.3)		
임부 교실	참여함	3(7.3)	1(2.4)	1.00	0.371
	참여 안함	18(43.9)	19(46.3)		
태 교	실시함	14(34.1)	18(43.9)	3.26	0.071
	실시하지 않음	7(17.1)	2(4.9)		
친정엄마 관계	편 함	20(51.3)	18(46.2)	1.08	0.299
	그렇지 않음	1(2.6)	1(2.6)		
수유 형태	모유 수유	17(41.5)	14(34.1)	0.67	0.606
	인공 수유	4(9.8)	6(24.4)		

* p<0.05

<표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평균 ± SD)

특 성	실험군(n =21) (평균 ± SD)	대조군(n =20) (평균 ± SD)	t	p
연 령	29.95 ± 2.33	31.75 ± 3.26	-2.02	0.051
임신 횟수 (회)	1.71 ± 0.85	2.30 ± 0.86	-2.19	0.034
유산 횟수 (회)	0.71 ± 0.85	1.30 ± 0.86	-2.19	0.034
신생아 몸무게(gr)	3218 ± 322.34	3044 ± 320.14	1.73	0.091
결혼 (개월)	48.76 ± 29.02	52.20 ± 51.84	-0.26	0.793
모유 수유기간(일)	28.89 ± 4.71	28.13 ± 7.23	0.36	0.720

* p < 0.05

2. 가설검정

가설1, 조기 접촉이 모아 애착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조기 접촉이 시도된 집단 (실험군)은 이루어지 않은 집단(대조군)보다 모아 애착행위가 높게 나타났다. (p = .000). 즉, 모아 애착행위에 대한 총 22점 만점에 실험군의 경우 평균점수가 12.33점이었으며, 대조군의 경우 평균점수는 6.60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높은 모아 애착행위를 보였으며,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9.635, p <.01)<표 3>.

<표 3> 조기 접촉 유.무에 따른 모아 애착의 차이

(평균 ± SD)

항 목	조기 접촉군(n =21) 평균 ± SD	비 접촉군(n =20) 평균 ± SD	t	p
동일시 행동	4.286 ± 1.056	2.400 ± 1.095	5.613	0.000
모아상호작용	8.048 ± 1.244	4.200 ± 1.542	8.813	0.000
전 체 값	12.33 ± 1.53	6.60 ± 2.23	9.635	0.000

• 제1-1가설 검정

제1-1가설인 “조기 접촉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산모의 신생아 동일시 행동 정도가 높을 것이다”를 검정하기 위하여 분만 3기 신생아 접촉을 가진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신생아 동일시 행동을 검정한 결과, 실험군이 평균 4.29 점의 반응을 보였으며 10개의 문항중 5개 문항에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조군의 경우 평균 2.40 점으로 평균 3개 문항에 대해서만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613, p<.01$) < 표 4 >. 이는 분만3기 신생아 조기 접촉시 동일시 행동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 조기 접촉 유. 무에 따른 산모의 신생아 동일시 행동의 차이

(평균 ± SD)

항 목	소 항 목	조기 접촉군(n =21)	비 접촉군(n =20)
		평균 ± SD	평균 ± SD
외모와 기능	1.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0.62 ± 0.50	0.35 ± 0.49
	2.크기에 대해서 말한다.	0.43 ± 0.51	0.15 ± 0.37
	3.눈을 살펴본다.	0.67 ± 0.48	0.50 ± 0.51
	4.신체에 관한 질문을 한다.	0.71 ± 0.46	0.25 ± 0.44
	5.신체기능에 관해 질문한다.	0.00 ± 0.00	0.00 ± 0.00
	6.인간의 특성과 관련하여 말.	0.48 ± 0.51	0.10 ± 0.31
	7.가족과 관련하여 말한다.	0.43 ± 0.51	0.15 ± 0.37
상태의 평가	8.상태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한다.	0.43 ± 0.51	0.65 ± 0.49
	9.상태에 대해 사실적으로 평한다.	0.29 ± 0.46	0.05 ± 0.22
	10.상태의 변화에 대해 말한다.	0.24 ± 0.44	0.20 ± 0.41
소 계		4.29 ± 1.06	2.40 ± 1.10

• 제1-2가설 검정

제1-2가설인 “조기 접촉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하지 않은 대조군 보다 산모의 신생아 상호작용이 높을 것이다”를 검정하기 위하여 분만 3기 신생아 접촉을 가진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산모의 신생아 상호작용을 검정한 결과, 실험군이 평균 8.05 점의 반응을 보였으며 12개의 문항중 9개 문항에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조군의 경우 평균 4.20 점으로 평균 5개 문항에 대해서만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8.813, p<.01$) < 표 5 >. 이는 분만3기 신생아 조기접촉시 신생아 상호작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 조기 접촉 유. 무에 따른 산모의 신생아 상호작용 양상의 차이

(평균 ± SD)

항 목	소 항 목	조기 접촉군(n =21)	비 접촉군(n =20)
		평균 ± SD	평균 ± SD
언어적 접촉	1.이야기 하거나 노래한다.	0.24 ± 0.44	0.15 ± 0.37
	2.이야기 할때 이름을 사용한다.	0.43 ± 0.51	0.20 ± 0.41
시각적 접촉	3.얼굴을 마주하는 자세를 한다.	1.00 ± 0.00	0.90 ± 0.31
	4.눈뜬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한다.	0.38 ± 0.50	0.05 ± 0.22
	5.눈을 뜨도록 자극한다.	0.29 ± 0.46	0.15 ± 0.37
피부 접촉	6.사지나 머리를 만진다.	0.90 ± 0.30	0.70 ± 0.47
	7.몸체를 만진다.	0.76 ± 0.44	0.40 ± 0.50
	8.손끝으로 만진다.	0.76 ± 0.44	0.55 ± 0.51
	9.손가락으로 쓰 답는다.	0.67 ± 0.48	0.30 ± 0.47
	10.손가락으로 만진다.	0.76 ± 0.44	0.25 ± 0.44
	11.끌어 당긴다.	0.95 ± 0.22	0.15 ± 0.37
	12.접촉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0.90 ± 0.30	0.40 ± 0.50
소 계		8.05 ± 1.24	4.20 ± 1.54

V. 논의

본 연구 대상자의 아기만출 직후 10분간 조기접촉이 모아애착에 영향을 주는 접촉의 횟수, 첫 접촉의 시간, 길이, 접촉 시점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비교 논의 하고자 한다. 그 동안의 문헌을 보면 분만후 첫 몇 분내지 몇 시간 내에 존재 한다는 모성 민감 시기의 피부접촉에 대해 Weiss(1979)는 분만 초기에 접촉 횟수를 증가 시키면 유대관계가 향상된다고 했고, Anisfeld(1983)는 모아의 첫 접촉의 시간 길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편 Curry(1982)는 분만후 한시간 이내의 피부접촉에 있어서 접촉하는 것 그자체가 중요하지 접촉의 길이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 동안 국내 문헌을 통한 모아 애착중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자형, 김진향(1981)은 어머니와 신생아의 첫 접촉을 수유실에서 시도 하였으며 모아의 접촉시 소요한 시간에 따른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박혜숙(1983)은 분만후 신생아실에서 접촉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12-24시간과 48-72시간 각각 모아애착행위를 관찰한 결과 높은 애착행위가 관찰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최인희(1986)는 분만직후 1시간동안 신생아를 작은 보자기에 싸서 heat lamp 아래에서 모아 피부접촉과 시각적 접촉을 주었을때 애착행위가 높았음을 주장하였다.

임은숙(2003)은 분만후 1시간 이내에 아기몸의 물기를 닦아주고 산모의 배에 15분간의 피부접촉을 하였을때 모성 유대행위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성미혜, 김미경(2005)은 분만직후 신생아 처치가 끝난 분만후 30분 이내에 20-30분 접촉을 하거나, 수유실에서 모아 조기접촉 횟수를 2-3회, 1회당 20-30분 정도의 조기접촉을 시도 하였을때 애착행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본인의 연구에서는 조기접촉의 시점과 방법, 횟수를 기

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최소 단위라고 여겨지는 아기만출 직후 총 10분간의 조기 접촉(언어적, 시각적, 피부적 접촉)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모아 애착행위가 증진되었음을 통해 모아애착을 증진시키는 유용한 중재임이 규명되었다. 반면 대조군은 임신횟수와 유산횟수가 실험군에 비하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아애착에 정도가 낮았으므로 본 논의에서 제외한다.

본 연구에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동일시 행동에서 높은 반응을 보여준 것은, Kim(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신생아와의 관계형성의 첫 단계인 동일시(identification)관계는 애착을 형성하는 행동의 일부로, 신생아를 인간으로 인식하는 과정이다(Brarratt & Roach, 1995). 동일시 과정 이후 탐색적인 접촉에서 차츰 애정을 가진 결합이 발생하는 동안 폭넓은 능동적인 접촉을 하게 된다. 이러한 애착행위 양상은 미소(Social smiling), 시각적 접촉(eye to eye contact), 피부접촉(Skin to skin contact), 언어적 접촉(social vocalization)등을 포함한다 (Kim, 1994). 산모의 신생아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첫 단계로서 동일시 과정은 애착을 발전시키는 행동의 일부이며, 신생아를 하나의 인간으로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 Ludington-Hoe(1977)에 의하면 동일시 행동과정은 분만 전에 시작되어 임신말기에 강해지면 신생아의 외모, 성, 크기와 상태, 신체의 기능(울음, 배변, 배뇨등)과 신체부위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동일시 행동에 대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Chao(1983)는 신생아의 외모와 기능에 관심이 많고 아기의 상태를 사실적으로 평가하고 상태의 변화를 언급할수 있으므로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동일시 행동을 위한 조력자로서 간호사의 역할은 분만 직후에 가장 중요함을 알수 있다.

한편,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모아 애착행위 양상에서 언어적 접촉, 시각적 접촉, 피부 접촉 모두에서 높은 반응을 보여주었

다. 정신분석 이론가나 사회학습 이론가는 신생아를 잠만 자고 포유만 하는 수동적 존재로 보고 있으나, Bowlby 와 Brazelton 은 아기를 능동적인 존재로 보고 출생시 부터 상호작용을 위한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다(Tulman, 1980). 그러나, 출생 후 이루어지는 신생아의 모아관계는 아기의 신호에 엄마가 반응하고 또한 엄마에 의해 아기가 반응하는 끊임없는 상호교환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역동적 조절과정으로 모아가 상호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하는 대화체계의 모든 발생, 시각적 응시, 몸동작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cho, 1973). 따라서, 모아관계는 출생직 후 부터 일정기간의 민감기를 거쳐 성립되며 엄마와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고 다양하므로, 어머니와 아기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모아의 상호작용은 불가결한 것이라 할수 있다.

모아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양상으로 언어적 접촉은 Rubin(1963)에 의하면 임신시 어머니들은 태아를 “it”로 표현하고 인칭대명사 (she/he)로 발전된 후 이름을 부르며 말하게 된다고 한다. Cropley 등(1976)이 보고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산모의 54%에서 신생아에게 말하고, 이름을 불렀다(18%)와 비교하면 극히 적었다. 또한 Cannon(1977)도 58%에서 신생아와 이야기 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사료된다.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시각적 접촉에서 나타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Lee 와 Kim(1981) 및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Kim(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것이다. 시각적 접촉은 흔히 모아 간에 발생하는 첫 상호작용 중의 하나로(Curry, 1987), Robson(1970)은 그의 연구에서 눈의 접촉은 신체적 접촉의 준비단계로서 초기에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것을 수락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모아는 서로가 눈길을 찾으려는 본능이 있어 어머니의 눈과 신생아의 눈이 교차해서 만나기 위해 얼굴을 마주하는 자세를 취하는 어머니가 만삭아의 경우 많다고 지적했으며, 시각적 접촉을 시도하는 어머

니가 54%에 달한다고 보고 하였다. 신생아는 생후 수분부터 며칠 사이에 감각기관의 발달로 통일된 행동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감각지각 능력은 성인에 가깝다. 즉, 신생아는 출생 직후부터 시각반응을 보여 눈과 눈을 마주보는 시각 접촉으로 엄마로 하여금 아기에 대해 친밀감을 갖게 하고 적극적 감정을 갖게 하며, 사회적 존재로서 인식시키는 작용까지 한다. 그리고 신생아는 소리에 의해 잘 반응한다. 여러 감각기관 중 촉각에 대한 반응은 가장 잘 발달한 감각기관으로서 엄마가 아기를 안았을 때의 친밀감, 따뜻한 애무, 젖 물리기 등은 아기에게 최고의 위안이 된다(cho, 1993). 또한 Ziegel과 Cranley(1978)은 이러한 시각적 접촉은 모아의 관계형성의 시작과 애착의 발달에 중요하며, 상호간의 정서적 반응의 변화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눈과 눈의 접촉이 성립되지 않으면 모아의 정서적 결속은 어렵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피부접촉에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Kim(1993)은 연구결과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Kim(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애착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로 형성되는 감정적인 관계로서 출생 후 수일 이내인 민감시기의 접촉과 상호작용은 애착적 결속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하며 이 시기에 형성된 결속은 영원하고 이 과정의 성패는 부모로서의 능력을 결정짓는 지속적인 결과를 초래한다(Symanski, 1992). 모아상호작용은 비교적 단시간(수시간 또는 수일간)에 급속히 성립하는 것이며, 신체적 접촉(피부와 피부의 접촉, 수유, 눈과 눈맞춤, 안아주기, 애무)에 촉진되는데, 최근의 피부와 피부의 접촉은 어머니가 손끝으로 신생아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세고 몸을 살피게 되며, 이것은 어머니가 신생아를 전체적이고 완전한 것으로 재 확인하는 것이다(Lodermilk, Perry, 2003).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이 진전되는 지표는 어머니의 접촉하는 태도에 그 특징이 있으며, 초기의 탐색적인 접촉에서 차츰 애정을 가진 결

합이 발달하는 동안 능동적인 접촉을 하게 된다(Schneider, 1997) 또한, 인간에 있어서 접촉은 출생이후 전생을 통해 평안함을 느끼고 또 배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산욕기 동안에 촉각 접촉을 박탈당한 산모는 신생아에 대한 책임감이 적고 간호에 대한 책임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Barratt & Roach, 1995). 그러므로 분만직후 수분내지 수 시간 내에 존재하는 민감 시기에 어머니와 아기의 조기접촉을 갖도록 하면 모성유대행위가 증가 된다고 연구발표 하기에 이르렀다.

이상에서와 같이 모성과 신생아의 모아애착증진을 위해 아기만출 직후 10분간의 조기접촉(언어적, 시각적, 촉각적 접촉)은 차별성 있는 간호중재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했다고 할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분만 직후의 신생아 조기접촉이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건강한 모아관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시도되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첫 몇 분내지 몇 시간내에 산모와 아기가 서로 피부와 피부를 맞닿으로써 산모는 임신의 환상에서 벗어나 그들의 독특한 개체로서의 아기에 대한 인각(Imprinting)이 일어나고 이는 모성유대 위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주장 되었다. 건강한 모아 관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아 애착행위 영향을 주는 조기 모아 접촉에 대해 간호중재의 발달을 꾀하고자 시도한 본 연구는 2005년 9월17일부터 11월 25일 까지 정상 신생아를 분만한 건강한 초산모 41명을 대상으로 분만 3기 조기 접촉후 모아 애착행위를 직접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분만3기 모아 조기 접촉군과 비접촉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15개의 제 특성은 두 군간에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신횟수, 평균 유산 횟수($p < 0.034$)가 비 접촉군이 조기 접촉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2. 가설1, 모아 조기 접촉한 실험군은 대조군 보다 모아 애착정도가 정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연구결과 조기접촉군의 모아애착 평균 12.33 (± 1.53) 점수로 대조군 평균 6.60 (± 2.23) 점수 보다 유의하게 높아 지지 되었다($t = 9.635$ $p = 0.000$).

가설 1-1, 모아 조기 접촉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산모의 신생아 동일시 행동 정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연구 결과 조기접촉군의 신생아 동일시 평균 4.286(\pm 1.056) 점수로 대조군 평균 2.400(\pm 1.095) 점수 보다 유의하게 높아 지지 되었다 ($t = 5.613$ $p = 0.000$).

가설 1-2, 모아 조기 접촉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모아 상호작용이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은 연구 결과 조기접촉군의 모아상호작용 평균 8.048(\pm 1.244) 점수로 대조군 평균 4.200(\pm 1.542)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아 지지 되었다 ($t=8.813$ $p= 0.000$).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기만출 직후 10분간의 조기 접촉이 모아 애착 (동일시 행동, 모아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간호중재임이 규명되었다. 어머니의 신생아 접촉이 어머니의 동일시 행동 및 상호작용 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기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모아의 상호작용은 불가결한 것으로 출생 직후 다양한 접촉과 상호작용은 애착결속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 시기에 형성된 결속은 영원하고 이과정의 성패가 부모로서의 능력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볼때, 간호사가 아기만출 직후 조기접촉을 지지하는 것은 모아의 건강한 상호관계 수립을 위한 간호사의 필수적인 역할로 생각되며, 모아 애착 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간호중재의 개발은 물론 이에 대한 적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아기만출 직후 10분간의 조기접촉 (언어적, 시각적, 피부적 접촉)이 모아 애착행위 중 모아 상호작용이 높은 것과 관련하여, 차별성 있는 간호중재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제언

아기만출 직후 10분간의 조기 접촉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발달적 시기이다. 산모의 모아 애착행위는 아기만출 직후 조기접촉의 시기, 시간, 방법 여부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생아와 가족의 심리, 사회적인 요구 보다는 신생아를 간호 하는 기술적인 면에 전념하고 있음에 따라 분만후 모아 관계형성과 가족 중심적 분만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기만출 직후 모아의 건강한 관계 수립을 위한 조기접촉 (언어적, 시각적, 피부적 접촉)이 필요함을 볼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본 연구는 실험군만 동일한 주치의 분만 개조자 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둘다 동일한 주치의 개조자를 제언한다.

2. 본 연구는 분만개조자의 성향에 따른 실험군, 대조군의 차이가 있는지 규명이 부족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제언한다.

3. 본 연구에서는 아기만출 직후 10분간 조기 접촉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5분, 15분, 20분 등의 시차에 따른 애착행위 정도를 비교연구 할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김기영(2000).태교관점 임부교실이 모아 애착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미예, 김선희, 장군자(2004). 아동간호학회지, 10(2), 180-186.
- 김미란 (2004), 신생아 중환아실에서 초기 모아 상호노출 정도와 모아애착, 모성자존감 간의 상호 관련성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소영(1989), 모.아상태 및 모성역할인지에 따른 산모의 모아애착행위,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숙(2000), 모자 동실이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돌보기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정순(2002). 태담과 촉각 자극의 모-태아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이 모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현옥(1991), 임신부의 태아애착행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혜숙(1983), 신생아 돌보기 활동이 산모의 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방경숙(1991),영아의 월령에 따른 초산모의 모아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주은(2001), 모자동실군과 모자별실군 질식분만 산모 피로도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성미혜. 김미경 (2005), 분만 직후 어머니의 신생아 접촉이 모아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 35(5), 842-849.
- 심미정(1984), 분만3기 및 4기동안 한국 문화적 모아 애착행위, 대한간호학회지 23(3)77-83.

- 이인혜(1993). 사회적 지지중재가 미숙아 어머니의 정서와 모성역할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자형, 김지향(1981),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애착행위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1(3),35-42.
- 이지연(2001), 시설 미혼모의 사회적지지와 자아효능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은숙(1984), 어머니와 신생아의 초기 피부접촉이 모성유대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진아, 이자형(2003), 모아 상호작용 관련 간호연구 분석, 아동간호학회지,9(2) 149-157.
- 연승은 (2003), 산, 전후 시기별 모유수유 교육이 초산모의 모유수유 지식과 방법 및 실천률에 미치는 영향, 공주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금희(1997), 모유수유 증진 간호중재 프로그램 초산모 모유수유,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광희(1986), 모아별실 제도에서의 모유수유가 모아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명재(2002), 가족분만실에서의 가족분만이 초산모의 분만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장영숙(2003). 미숙아 어머니의 워크북 프로그램이 스트레스, 모성 역할 자신감, 모유 수유 실천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현숙,이군자, 장춘자(2003). 아동간호학회지, 9(4), 359-365.
- 최인희(1986), 모아 조기접촉이 어머니 역할획득과 애착행위에 미치는 영향, 전남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은실(2001), 애착과 일반적 자기 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규은 (2001), 모성 자존감 및 모성 민감성과 모아 애착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경자, 김정수(2003), 임부의 태교관련 지각, 태교관행 및 태교관점 모-태아 상호 작용 실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경북대학교.
- 황은주(2002). 아버지의 가족분만 참여 유무에 따른 부성애착과 역할자신감의 비교.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명행(1999), Doula 식 분만간호가 초산부의 분만중 분만스트레스로 인한 혈장 베타엔돌핀, 혈청 코티졸 및 분만후 상태불안에 미치는 효과, 을지의과 대학교, 임상실험 연구.
- 황원주(2004), 모유수유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ratt, M., Roach, M. (1995). Early interactive processes ; Parenting by adolescent and single mother, infant Beh and Development, 18, 97 -109.
- Bigner, J. J. (1985). Parent -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Chao, E. S. (1983). Unique aspect of Korean mother - infant interaction across time. Sigma Theta Tau, 153, 38(6-7), 1-108.
- Cho, K. J. (1993). Pattern of change of mater - infant interaction in lowbirth weight infant and normal infant.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Cropley, C., Priscilla Lester, and Sharon Pennington (1976), Assessment tool for measuring maternal attachment behaviours, current practice in Ob & Gy Nsg. Vol. I, St. Louis : The C.V. Mosby Co., 16-28.

- Curry, M. (1987). Significance of early physical contact between mother and infant. St. Louis ; The C.V. Mosby Company.
- Klaus, M and J. Kennell(1970), Mothers seperated from Their Newborn Infants, Pediatric. clin. North.AM., 17:1015.
- Klaus, M.H.et.al(1972), Maternal Attachment: Importance of the Frist postpartum Days, N. Eng1.J.Med., 286:460-63.
- Lodermilk, D.L., Perry. S. E.(2003). Maternal nursing (6thed). St.Louis ; Mosby Company.
- Rubin, R. (1963), Maternal Touch - at birth and throughout life, human contact offers comfort and leads to learning, Nsg outlook, 11:11, 828.
- Rubin, R. (1972),Fantasy nd object constancy in Maternal relationship, Maternal Child Nursing Journal, 1:101-11.
- Rubin, R. (1967), "Attainment of the Maternal Role - Part I . Processes." Nsg Research, 16, No.3,237,
- Robson, K.S. (1970). Pattern and determinant of maternal Attachment. J of Pediatrics. 77. 976-85.
- Schneider, E.(1997).Touch communication ;The power of infant massage. Massage Mag. 68.40.
- Swanson, J. (1978), "Theories of Maternal Attachment," Advanced in Nursing Science, 3, No.4, 7- 14.
- Tulman,L.J.(1981), Theories of Maternal Attachment, Advanced in Nursing science, 3,No.4, 7-14.
- Zigel.E., Cranley. M.(1978), Obstetric nursing 7th ed. New York ; Macmilian Publishing Company.

부록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문지

분 만 일 시	월 일 시
설문지 작성일시	월 일 시

귀하의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윤 회자 간호사입니다.

저는 분만실에서 산모의 분만을 돕고 있는 간호사로서 수년간 일하고 있는 한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학생입니다.

저는 수년간 분만을 도우면서 어떻게 하면 오랜 수고 끝에 분만한 아기를 잘 돌볼 수 있는 애착을 증진시킬 것인가를 고심하여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수유중에 아기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산모께서 일부러 어떠한 노력도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에 제가 귀하께서 아기를 다루는 것을 관찰해도 좋으신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기 모아 접촉이 모아상호작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임상에서 앞으로 간호활동에 귀중한 지침 자료로서 쓰여 질 것입니다. 관찰된 내용은 산모들이 아기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본 자료로만 쓰일 것이며 개인의 정보는 일체 비밀로 할 것입니다. 질문지는 단답형 질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응답에 약 5분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질문에 답하고 안하고 여부는 귀하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며, 그것이 귀하 또는 아기 간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 귀하께서 아기를 돌보시는 것을 관찰한 후에 저희가 필요한 내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빠른 회복과 아기의 건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가꾸어지길 기원합니다.

귀하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역사회간호학

연구자 윤 회자 올림

(연락처 ; 032) 460-3640 / 011-9084-7405)

[일반적 특성 설문지]

다음 문항을 읽어 보시고 귀하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표 또는 직접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나의 연령은 만 ____ 세 이다.
2. 나는 이번이 ____째 임신이고, 이제까지 총 ____ 번 유산 했었다.
3. 나의 새로 태어난 아기의 몸무게는 ____ g 이다.
4. 귀하가 기대했던 아기의 성별은 무엇 입니까?
 남 여 상관없음
현재 아기의 성별: 남 여
아기성별에 대한 기대와 실제의 차이: 일치 불일치
5. 귀하의 결혼기간은 ? 만 ____ 년 ____ 개월
6. 귀하의 교육정도는 어떠합니까?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이상
7. 귀하의 직업상태는 어떠합니까?
 없음 출산을 계기로 사직 산후휴가 후 복직예정
 육아휴직 후 복직예정
8. 임신을 희망하셨습니까?
 내가 원했음 남편이 원했음 나와 남편이 원했음
 둘 다 원하지 않았음

귀하는 임신을 계획하셨습니까?

- 안했음 나혼자 계획함 부부함께 계획함 남편혼자 계획함

9.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10. 가족의 월수입은 얼마입니까?

-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이하 201~300만원 이하
 301만원 이상

11. 귀하는 임신동안 임부 교실에 참여했습니까?

- 예 아니오

12. 귀하는 임신동안 태교를 실시 했습니까?

- 예 아니오

13. 귀하는 친정 어머니와 편안한 관계입니까?

- 예 보통임 아니오

14. 귀하의 현재 (출산 1개월 후) 수유형태는 어떻습니까 ?

- 모유수유 인공수유

15. 귀하의 모유수유 기간은 퇴원 이후 몇일 간 이었습니까? _____ 일

부록 2. 모아에착행위 관찰도구

1.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동일시 행동

- 외모와 기능
1. 성 (Sex)에 대해 말한다. _____
 2. 크기에 대해서 말한다. _____
 3. 눈을 살펴본다. _____
 4. 신체에 관해 질문한다. _____
 5. 신체 기능에 관해 질문한다. _____
 6. 인간의 특성과 관련하여 말한다. _____
 7. 가족과 관련하여 말한다. _____
- 상태의 평가
8. 상태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한다. _____
 9. 상태에 대해 사실적으로 평한다. _____
 10. 상태의 변화에 대해 말한다. _____

2. 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상호작용

- 언어적 접촉
1. 이야기 하거나 노래한다. _____
 2. 이야기 할 때 이름을 사용한다. _____
- 시각적 접촉
3. 얼굴을 마주 보는 자세를 한다. _____
 4. 눈뜬 사실에 대해 이야기한다. _____
 5. 눈을 뜨도록 자극한다. _____
- 피부접촉
6. 사지나 머리를 만진다. _____
 7. 몸체를 만진다. _____
 8. 손끝으로 만진다. _____
 9. 손가락으로 쓰다듬는다. _____
 10. 손가락으로 만진다. _____
 11. 끌어당긴다. _____
 12. 접촉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_____

Abstract

A Study of the effects of Early Contact on Maternal Infant Attachment

Hee Ja, Yu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oon Bok, Chang. RN, CMN, PhD.)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skin-to-skin contact between mothers and babies immediately after birth on attachment behavior. This study employed a nonequivalent control posttest time series design.

A total of 41 first-time mothers who gave birth during the period from September to October 2005 in G hospital, Korea, participated in the study.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21) and the control group (20). For the experimental group, skin-to-skin contact between mothers and newborns took place for one minute immediately after birth, followed by another 9 minutes after a five minute period of newborn care. Mother-infant attachment was assessed in the newborn nursery and a nurse observed the first breast-feeding of all participants six hours after birth.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used for this study was composed of 15 items measuring general characteristics and 22 items measuring mother-infant attachment (Lee and Kim, 1981). These 22 items consisted of 10 items assessing mothers' identification behaviors toward their babies and 12 items

assessing mother-infant interaction qualit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expressed as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χ^2 -test were performed to assess the homogeneity and the quality of mother-infant attachment of the two groups.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the mean number of pregnancies ($p < 0.034$) and the mean number of abortions ($p < 0.05$)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with the control.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other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groups.

2. Hypothesis 1. Results supported the hypothesis that the experimental group has higher levels of mother-infant attachment security (12.33 ± 1.53)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6.60 ± 2.23) ($t = 9.635$ $p = 0.000$).

Hypothesis 1-1. Results supported the hypothesis that the experimental group has higher intensity of identification behaviors toward babies (4.286 ± 1.056) than the control group (2.400 ± 1.095) ($t = 5.613$ $p = 0.000$).

Hypothesis 1-2. Results supported the hypothesis that the experimental group has a higher quality of mother-infant interaction (8.048 ± 1.244) than the control group (4.200 ± 1.542) ($t = 8.813$ $p = 0.000$).

In conclusion, the 10-minute skin-to-skin contact between mothers and babies immediately after birth had positive effects on identification behavior and mother-infant interaction. Such a skin-to-skin contact can be recommended for all mothers-to-be as a way of improving mother-child relationships.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compare the effects of skin-to-skin contact between mothers and babies according to the duration of contact.